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small>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small>	<h1>보도자료</h1>	http://www.kisti.re.kr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대전(본원): 대외협력실 이종성 042 - 869 - 0976 / 이해준 0676 문의: 이윤수 선임기술원 042-869-0645		
배포번호 : 2019-25 배포일자 : 2019.04.26	매수 : 보도자료 2매	배포처 : 대외협력실

KISTI, 사이버공격 추적용 실시간 가시화 기술 설명회 개최

- 정부지정 보안관제 전문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IT업계에서 관심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최희윤, 이하 KISTI)에서는 4월 26일(금) 오후 2시, 본원 국제회의실에서 “사이버공격 실시간 추적용 가시화 기술”에 대한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당 기술 설명회는 KISTI 내 성과확산실과 연구부서가 협업하여 KISTI 정보보안 분야의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로서, 정부지정 보안관제 전문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IT 전문기업에서 참석해 기술의 특징과 실효성에 대해 확인하고 기술이전 및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이버공격 실시간 추적용 가시화” 기술은 대규모 사이버위협 정보를 가시화함으로써 보안관제 전문인력에게 직관성을 제공한다. 특히, 악성행위가 의심되는 주요 IP를 중심으로 가시화 하는 “내·외부 공격자 가시화 시스템”과 전체 IP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가시화 하는 “공격자 상관정보 가시화 시스템”의 기술을 포함한다.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의 이혁로 센터장은 “보안관제 실무현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한 사이버위협정보를 전문인력에 의해 수동으

로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기술의 공유를 통해 보다 안전한 사이버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전했다.

KISTI 최희운 원장은 “이번 기술 설명회를 통해 연구원과 민간기업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국가적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해당 기술이 정보보호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응용이 가능한 만큼 참석한 업체들이 새로운 영역 개척에 활용하는 것도 기대해 본다.” 고 이야기 했다.

KISTI의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과학기술분야 국가 공공기관의 사이버안전을 위해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보안관제센터의 실무에 필요한 실용적 연구와 자체 시스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로 SMARTer, VIZspacer, VIZcosmos 등 다양한 첨단 보안관제 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해 센터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사이버공격 실시간 추적용 가시화 기술”은 VIZspacer와 VIZcosmos 시스템에 적용된 기술이다.